

가슴이 메어지는 통절한 슬픔으로 불학을 뒤적이다

<56> 어학의 천재, 여정(呂澂)거사

구양경무(歐陽竟無) 거사의 수제자이면서 그의 입적 이후 '지나내학원'을 이끌고,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불교학을 영도했던 이가 여정(1896~1989) 거사이다.

거사는 강소성(江蘇省) 단양현(丹陽縣)사람으로 자(字)가 추일(秋逸)이고, 원명은 위(渭)였지만, 후에 '징(澂)'으로 바뀌었다. 어려서 매우 총명해 독학으로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등에 매우 뛰어났고, 후에 불교를 연구하면서 산스크리트 빨리어 티베트어 등에도 정통했다. 거사는 강소성의 진강(鎮江)중학을 졸업하고, 상주(常州)고등실업학교 농업과에 진학했다. 1년 만에 다시 민국대 경제과에 합격해 다니던 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하고, 1914년 금릉각경처에서 구양경무 거사를 따라 불교학을 연구했다. 그 다음해 일본으로 유학해 미술을 전공했다. 거사가 미술을 전공했고, 또한 불교를 가까이 했던 원인은 그의 형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거사의 형인 여봉자(呂鳳子)는 당시 유명한 화가로서 특히 불화(佛畵)에 능통했고,

虛법사가 창립한 '무장불학원(武昌佛學院)'과 함께 당시 중국불교학을 이끌어가는 양두마차로 회자되었다. 중국의 근·현대불교를 논할 때, '지나내학원'과 '무장불학원'은 결코 빼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나내학원과 무장불학원은 모두 1922년에 세워졌고, 또한 설립자인 구양경무와 태허 법사는 함께 금릉각경처의 '기원정사'에서 수학한 동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상적인 면에서는 절제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구양경무가 재가거사이고, 태허 법사가 출가 승려라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와 사상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구양 거사는 '법상유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던 반면에 태허 법사는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했다. 이러한 입장과 사상적 차별은 1918~1927년까지 수 차례 대규모 '논쟁'을 발생시켰다. 이를 '법의지쟁(法義之爭)'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지나내학원의 '구양경무-여정'과 무장불학원의 '태허-인순(印順)법

출간했다.

1943년 2월 구양 거사가 입적하자 거사는 원우회 추천으로 지나내학원 원장에 취임했다. 왕은양 거사는 원우회 이사에 취임했다. 1949년, 지나내학원을 '중국내학원'으로 개명했고, 1953년 원우회 결정에 따라 중국내학원은 폐원했다. 그 해 6월 북경에서 '중국불교협회'가 창립되고, 거사는 상무이사에 선출됐다. 이 당시 거사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 강소성 인민대회 대표 및 전국정협위원 등을 역임했다. 1956년 거사는 '중국과학원' '사회과학부' (후에 '중국사회과학원'으로 독립) 위원과 철학연구소 연구원에 임명됐다. 1961년 거사는 사회과학부 위탁으로 남경에 5년 과정의 '불학반(佛學班)'을 전담하면서 '중국불학'과 '인도불학' 과정을 개설했다. 후에 강의를 정리해 출판한 것이 <중국불학원류략강(中國佛學源流略講)>, <인도불학원류략강(印度佛學源流略講)>이다. 1962년부터 거사는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보다 뛰어난 대장경을 출판하자는 포부를 갖고 <신편한문대장경목록(新編漢文大藏經錄)> 저술에 착수해 3년의 노력 끝에 완성했다. 이는 거사의 수십 년 동안의 불교연구를 종합하는 연원이 담긴 것이었지만,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계획이 좌절됐다. 그간의 거사가 연구한 자료조차도 모조리 훼손됐다. 71세 거사는 강소성 고향집으로 도피했고, 후에 다시 북경의 청화원(淸華園)으로 이사해 1989년 7월 93세로 입적했다. 이 말년의 23년 동안 거사는 어떠한 불교와 관련된 저작이 없었다.

거사는 1914년 구양 거사를 따라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1989년 북경에서 입적하기 까지 약 70년간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상해미술전문학교에서 근무한 3년을 제외하면 거의 평생을 불교연구에 바쳤다. 그에 따라 거사의 저작은 상당히 방대하다. 초년에 <미학개론(美學概論)>, <현대미술사상> 등 미술과 관련된 저작 외에도 인도 중국 티베트 불교와 관련된 저술이 수십 권에 달해 그 목록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 된다.

아쉬운 것은 거사가 말년에 꿈꾸었던 보다 완벽한 <대장경>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무산됐던 점이다. 그것은 양문회-구양경무-여정으로 이어지는 삼대의 '대원(大願)'이었다. 양 거사가 본래 '금릉각경처'를 세웠던 본원은 바로 대장경 출간에 있었다. 특히 1905년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의 출간에 자극을 받아 전체적인 서목(書目)을 상정한 <대장경요(大藏經要)>를 기획하지만, 그를 완성하지 못하고 <대장경요서례(大藏經要敘例)>를 전술해 류목(類目)만을 정하고 입적했다. 양 거사의 유지를 계승한 구양 거사 생전에 바로 일본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이 발간(1934)됨을 목도했지만, 역시 양 거사의 <서례>를 바탕으로 한 <장요(藏要)> 3집만을 전술했을 뿐이다. 여정 거사가 <신편한문대장경목록>을 전술했던 것은 이러한 3대에 걸친 숙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릉각경처에서 철저한 교감을 걸쳐서 판각을 통해 발간한 수많은 경전을 비롯한 전적들

은 비록 미완이지만 이미 <대장경>이라고 칭할 정도이니, 이들 삼대의 노력은 그들이 처한 시대상황(청말 외세의 침탈로부터 중화민국 성립과 내전, 중일전쟁,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문화대혁명 등)을 감안한다면 극도의 평가를 받을 업적이다.

양문회 거사(1837년 출생)로부터 구양경무, 여정(1989년 입적)으로 이어지는 3대의 153년은 중국역사상 유례가 없는 변혁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들 3대가 중국 불교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3대는 불법에 대한 입장과 풍격에 조금씩 차질이 나타난다. 그에 따라 여기에서 간략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양 거사는 비교적 일찍 개명된 지식인으로서 중국불교의 쇠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처해 불경의 출판 및 유통, 후학의 양성에 뜻을 두고, 금릉각경처·기원정사·불학연구회 등의 활동을 다했고, 그것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주변엔 거사를 이끌어고 승대덕과 그와 함께 법을 논할 도반들이 극히 적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거사의 불교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구양 거사는 1909년부터 양 거사를 따라 금릉각경처에서 본격적으로 불교 연구에 전념했다. 당시 각경처에는 이미 수십 만권의 경전자료가 구비돼 있었고, 주변에 많은 연구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대만의 동초(東初)법사가 <중국불교근대사>에서 "당대(唐代) 이후 참다운 불학(佛學) 제일인"이라고 극찬을 보낼 정도였다. 그러나 구양 거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 6세에 부친을 잃고, 37세에 모친의 죽음을 맞은 이후 주변의 모든 가족과 친우, 아끼던 제자 등이 거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특히 거사가 매우 사랑했던 딸 '란(蘭)'은 17세에 거사를 따라 금릉각경처에서 불교공부를 하다가 거사가 지나내학원 모금을 위해 감숙성(甘肅省)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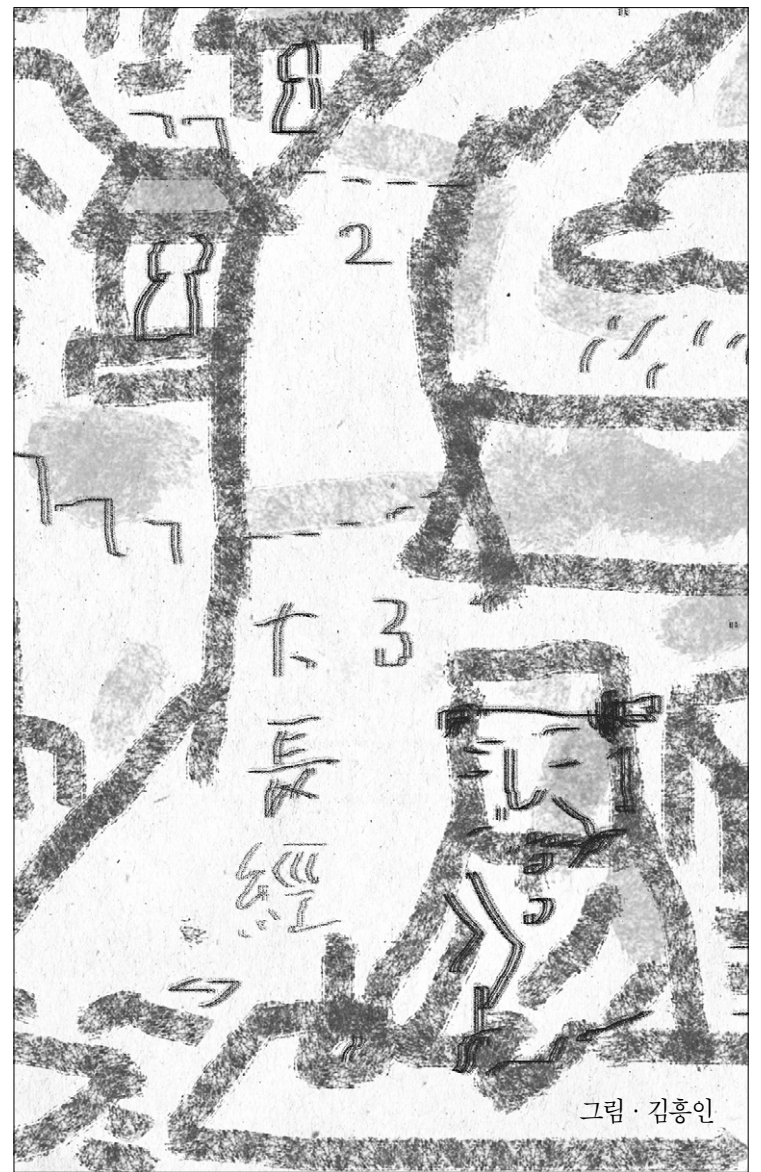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가 오니 병으로 숨져 있었다. 거사는 "가슴이 메어지는 통절한 슬픔으로 한밤중까지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점차 불학을 뒤적였고, 유가(陰伽)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새벽녘에 이르러 유가·유식이 얼음 녹듯이 모두 풀려났다"고 자술하듯이 항상 주변의 슬픔을 불교의 연구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슬픔은 거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정 거사는 2대와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서 불교를 연구할 수 있었다. 거사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학능력과 풍부한 자료, 수많은 선배 연구자들의 자극과 격려 속에서 묵묵히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불교연구에 매진했다.

비록 말년에 이르러 문화대혁명으로 절필한 채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미 생전에 쌓아온 연구성과는 거사를 '현대 불교학의 대가'의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 김진무 (중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독학으로 영어·일어·불어·티베트어 등 구사

완벽한 '대장경' 출판은 정치적 상황으로 무산

문화대혁명으로 연구자료 모두 훼손

입적이 양문회 거사를 따라 금릉각경처에 상주하며 불교를 배웠다. 이러한 반연은 거사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미술과 불교에 깊은 소양과 흥미를 갖게 해주었다. 거사는 1916년 귀국해 상해(上海)미술전문학교에서 교무주임을 맡았다. 1918년 구양경무 거사가 지나내학원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거사를 불렀고, 이로부터 항상 구양 거사를 보좌하며 오로지 불교연구에 전념하였다.

1922년 지나내학원이 개원하고, 1923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해 강의가 시작되자 거사는 전체적인 관리와 각경처 업무를 맡았다. 당시 지나내학원 교수진은 창립자인 구양경무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했던 탕용동(湯用彤)을 비롯해 섭우경(聶藕耕), 구희명(邱曦明), 경창극(景昌極) 등 당시 불교학계에 유명한 학자들이 포진했지만, 전체적인 강의와 실무는 바로 구양 거사의 애제자들인 여정과 왕은양(王恩洋) 두 거사가 담당했다. 이러한 강의진은 불교학에 뜻있는 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지나내학원은 태허(太

사)가 주축을 담당했고, 그로부터 당시 거의 모든 승속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했다. 지면관계상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논쟁을 통해 불교학이 커다란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음을 분명하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지나내학원은 사천의 강진으로 이주했다. 금릉각경처와 지나내학원의 경판과 중요한 자료 등 엄청난 분량의 이장집을 거사 책임하에 무사히 옮겼다. 강진 '축원'에서는 구양 거사가 노약했던 까닭으로 거사가 거의 모든 원무를 담당했다. 이 시기에 거사는 바쁜 와중에도 산스크리트와 티베트어 원전을 연구해 <섭대승론>, <인명정리문론>의 티베트본과 <능가경> 산스크리트본을 출간했으며, <인도불학원류략론(印度佛學源流略論)>, <중국불학원류략론(中國佛學源流略論)>, <잡아함경간행정기(雜阿含經刊行定記)> 등의 저작과 학술적으로 중요한 몇 편의 논문들을 출간했다. 또한 화서(華西)대학의 중국문화연구소와 합작해 중국과 티베트 사료를 모은 <한장불교관계사료집(漢藏佛敎關係史料集)>을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만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양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 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사를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증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